

##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 주년

50 년간의 성공을 회고하다

### 제 6 장:

#### 2010 년 - 2019 년: 절대적인 정확도를 향하여

2010 년대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대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호모순적인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조정을 해야 한다. 오늘날처럼 너무도 많은 할 일과 오락들로 우리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꽂 채운 시기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현재”가 우리의 사고와 대화를 이 정도로 독점한 시기도 그 이전에는 없었다. 나날이 증가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The Power of Now)>의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의 팔로워 수를 보기만 해도, 우리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현재의 순간이 우리의 행복 추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동시대인들은 끊임없는 과잉 적응을 장려하는 일종의 격차가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받아들이면서, 양극을 오가는 삶을 영위한다.

이렇게 다양한 속도의 시간에 대한 관점에 당면하여, 제니스는 당장이라는 개념을 포착하고자 했다. 즉 고객들이 두 눈으로 현재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l Primero(엘 프리메로)는 10 분의 1 초 단위의 시간 측정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오토매틱 무브먼트였다. 초침이 10 초 동안 다이얼을 한 바퀴 도는 El Primero Striking 10<sup>o</sup>(스트라이킹 1/10 초)는 2010 년 출시되었으며, 10 분의 1 초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 타임피스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복잡한 시대에 태어났다. 오늘날 우리는 마이크로 트라이브에 속할지 속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이런 트라이브는 때로는 커뮤니티가 되기도 한다. El Primero Striking 10<sup>o</sup>(스트라이킹 1/10 초)와 같은 해에 서비스를 개시한 인스타그램은 이 현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새로운 SNS 는 즉각적인 반응을 장려한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좋아요”를 눌러 호감을 표시하는 데는 몇 분의 1 초면 충분하다. 즉각성의 시대에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El Primero Striking 10<sup>o</sup>(스트라이킹 1/10 초)는 이러한 즉각성의 10 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오브제이다.

제니스 공방은 최고의 정확도 추구에 있어 이 정도의 업적으로 자족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노하우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였다. 2017 년, 제니스는 기계장치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인 100 분의 1 초 단위 시간을 측정하고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Defy El Primero 21(데피 21)를 출시하였다. 이는 그 전 모델보다 10 배나 빠른 50Hz 로 진동하는 ‘엔진’이 있기에 가능한 업적이다. 무브먼트의 심장부는 시간당 360,000 회라는 현기증 나는 속도로 박동하며, 중앙의 크로노그래프 바늘은 1 초에 다이얼을 한바퀴 돈다. 이로써 제니스는 초고도 정확도의 세계에 입문하였다.

같은 해 제니스는 모노크리스탈린 실리콘 소재의 혁명적인 모노블록 오실레이터(진동자)를 장착한 Defy Lab(데피랩)을 선보였다. 1675 년 네덜란드 과학자 크리스티안 하위헌스(Christiaan Huygens)가 발명한 이래 기계식 위치메이킹에서 계속 사용되어 오던 밸런스 스프링을 모노블록 오실레이터로 대체한 모델이다. 18Hz 의 고주파수로



박동하는 Defy Lab(데피 랩)을 개발함에 있어 제니스는 LVMH 그룹 연구개발 부서의 수년간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였다. LVMH 그룹이 연구 결과 획득한 노하우를 2,333 개의 크로노그래프 수상 경력에 빛나는, 별이 인도하는 브랜드 제니스에 이전한 것은 어찌 보면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제니스의 미래는 너무도 당연하게도, 실현가능성과 극도의 정확성의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는 이러한 기술적 혁신과 함께 한다. 사실 언젠가는 El Primero(엘 프리메로)가 1000 분의 1 초를 디스플레이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일단은 현재로 돌아와서 올해로 50 주년을 맞는 이 전설적인 무브먼트에 대해 얘기해 보자. '불합리(unreasonableness)'의 나이 50 세는 새로운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나이이다. 50 세의 청년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El Primero(엘 프리메로) 탄생 반 세기를 기념하기 위해 기본 무브먼트를 재작업하여, 조립이 더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물론 미학적, 기술적 특징은 그대로이다. 여전히 통합형 고주파수 무브먼트이며, 날짜 표시창이나 측면 클러치와 칼럼-휠도 그대로 유지해 주었다. 오리지널 모델보다 부품 수가 몇 개 줄었으며, 초침 정지 장치를 추가하고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고주파수 때문에 50 시간이었던 파워 리저브를 증가시키는 등, 제니스 공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더해 주었다. 모듈형 접근방식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10 분의 1 초 단위로 측정하고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고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플라이백 기능도 제공된다.

매일 El Primero(엘 프리메로) 작업을 하며 이 무브먼트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El Primero(엘 프리메로)가 영혼을 가진 오브제라고 한다. 공방 작업자 중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El Primero(엘 프리메로)는 모든 면에서 최초였으므로, 이름과 어울리는 존재입니다. 그 정도의 정확성에 도달한 최초의 시계였고, 36,000 회 진동으로 박동하는 최초의 시계였습니다. 이 무브먼트 작업을 하다 보면 자부심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너무도 완벽한 오브제이거든요! 구조되어 생산이 다시 시작되었고,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는 무브먼트죠.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동안 많은 컴플리케이션이 추가되었지만, 언제나 고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 무브먼트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니스가 El Primero(엘 프리메로)고, El Primero(엘 프리메로)가 제니스입니다."